



'2012 팔도 프로야구' 15일 대구 시민야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2회말 3실점을 허용한 KIA 선발 윤석민이 강판되고 있다.

雨울한 석민씨

KIA 에이스 윤석민 계속된 비에 어깨 식어
삼성전 2회 못 넘기고 홈런 포함 4실점 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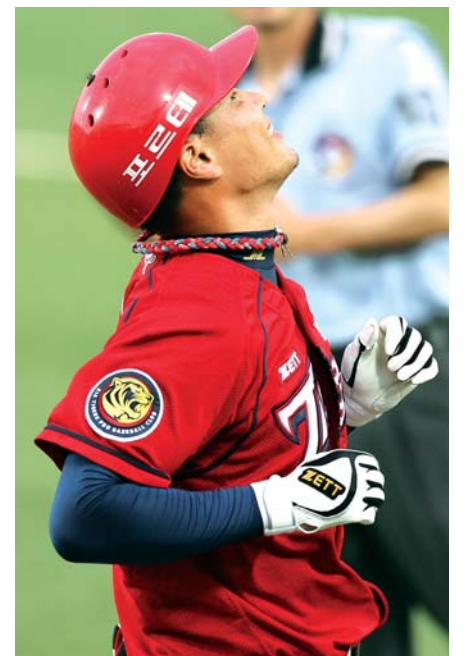


계속된 비에 에이스의 어깨가 식었다.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인 윤석민이 15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에서 2회 조기 강판됐다. 1과3분의 1이닝 4실점, 10명의 타자를 맞아 홈런 포함 5개의 안타와 볼넷 하나를 내줬다. 출발부터 불안했다. 선두타자 박한이를 중전안타로 출루시킨 윤석민은 이승엽의 볼넷으로 1사 1·2루의 위기를 맞았다. 박석민과 최형우를 플라이로 잡아내며 실점없이 1회를 넘겼지만 2회 첫 타자 진갑용에게 시즌 4번째 피홈런을 허용했다. 윤석민은 이어진 채태인과의 승부에서 좌전안타를 허용하며 흔들렸다. 조동찬의 희생 번트에 이어 김상수의 1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0-2. 윤석민은 결국 박한이의 2루타로 3번째 실점을 기록한 뒤 1사2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마운드를 물러받은 앤서니가 정현욱을 땅볼로 잡으며 투 아웃을 만들었지만 이승엽의 한방으로 2루주자 박한이까지 홈을 밟아 윤석민의 자책점은 4점이 됐다. 지난 4일 두산전 이후 11일만의 등판에서 2회도 넘기지 못한 윤석민의 방어율은 3.01에서 3.40까지 뛰어올랐다. 야속한 장맛비가 됐다. 팔꿈치 통증으로 재활군을 다녀왔던 윤석민은 복귀 후 2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가장 최근 등판인 4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몸이 좋지 않은 상

황에서도 8이닝 1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무엇보다 문제가 됐던 밸런스가 잡히면서 승리 쌓기에 속도가 붙는 것 같았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윤석민은 10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이어 15일 삼성과의 원정 경기까지 두 차례 등판을 할 예정이었다. 10일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등판이 하루 밀린 윤석민은 11일 경기까지 취소되면서 13일로 등판 날짜를 옮겼다. 그러나 13일에도 경기를 앞두고 대구구장에 비가 쏟아지면서 또 경기가 취소됐다. 윤석민은 이날 빗속에서 캐치볼을 한 뒤 다시 짐을 싸야 했다. 3차례 선발로 대기했던 윤석민은 4번째 예고 끝에 선발로 등판했지만 초반 컨디션 난조 속에 삼성 타선의 못매를 맞고 말았다. 장맛비에 윤석민의 승리도전과 선동열 감독의 필승 마운드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1차 계획은 윤석민을 두 차례 선발로 출격시키고 앤서니를 중간으로 활용해 난적 롯데·삼성과의 기싸움을 하는 방안이었다. 우천취소로 변경된 2차 계획은 삼성전 첫 경기에서 이어 17일부터 시작되는 두산과의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 소사·앤서니와 함께 윤석민을 다시 한번 출격 시키는 것이었다. 많은 공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전반기 마지막 투입도 가능하지만 윤석민이 일찍 무너지면서 앤서니의 부담이 커졌다. 앤서니는 15일 윤석민에 이어 5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3과3분의 2이닝 동안 61개의 공을 던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현 99일 만의 복귀... 첫 안타 신고

'해결사' 김상현이 그라운드에서 복귀했다. KIA의 거포 김상현이 15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7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전했다. 4월7일 SK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손바닥 골절상을 당했던 김상현의 99일만의 복귀다. 지난 12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된 김상현은 이날 롯데와의 경기에서 대타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8회 콜드게임이 선언되면서 타석에 서지 못했다. 김상현은 이후 삼성과의 경기에서 이를 연속 우천취소되면서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지만 15일 수비까지 소화하며 복귀전을 치렀다. 2회 첫 타석에서 병살타를 때린 김상현은 6회 볼넷으로 출루한 뒤 홈을 밟으며 득점을 기록했다. 8회에는 정현욱을 상대로 복귀 후 첫 안타를 신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상현이 15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① 덕아웃 말말말

“정현욱은 스승 선감독의 눈치보며 던져요”

▲(정)현욱이 형은 아직도 던지면서 KIA 덕아웃 봐요 = 선동열 감독에게 인사를 하러 들린 삼성 안지만, 정현욱이 스승인 선 감독에게 혼날까봐 눈치보면서 공을 던진다면?
▲아휴, 저것들을 어떻게 막아? = 선동열 감독, 삼성 시절의 제자들이 돌아가

자, 13일 훈련시간에 오승환·정현욱·안지만·권오준·차우찬이 선 감독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나란히 KIA 덕아웃을 찾았다.
▲아껴줬다가 이따 던져라 = 선동열 감독, 경기전 최향남이 캐치볼을 하는 것을 보고.

▲양팀 감독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 = 유남호 경기 감독관, 13일에 이어 14일에도 비가 내리면서 우천취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고민된다며, 13·14일 KIA와 삼성의 대구경기는 우천순연했다.
▲잘 던졌으면 지금까지치고 있을 건데 = 퓨처스리그 올스타전 홈런레이스에

출전한 황정람에게 공을 던져준 정상교, 자기가 공을 잘못 던져서 홈런을 하나도 치지 못했다면서.
▲롯데전만 그러나 = 이용규, 롯데전 타율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에 올 시즌 고루고루 못치고 있어서 창피하다며, 이용규는 지난 12일 롯데를 상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지만 올 시즌 롯데전 타율이 0.179에 불과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장맛비에 퓨처스리그 올스타전 취소

장맛비에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올스타전이 취소됐다. 15일 오후 2시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예정됐던 2012 퓨처스리그 올스타전이 장맛비에 열리지 못했다. 이번 올스타전은 14일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홈런 레이스 예선만 치른 뒤 우

천으로 중단됐다. 15일 오후로 경기가 연기됐던 올스타전은 비가 계속되면서 결국 취소가 결정됐다. 한편 KIA에서는 투수 임기준과 야수 정상교·유재혁·황정람이 올스타로 선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청룡기 첫 상대는 개성고

광주일고가 부산 개성고와 청룡기 첫 대결을 벌인다. 제67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대진표가 확정됐다. 광역리그 전라권 1위로 청룡기에 진출한 광주일고는 21일 오후 2시 잠실구장에서 개

성고와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동성고는 23일 오후 4시 목동구장에서 대전고와 16강 진출을 다툰다. 이번 대회는 21일 오전 11시 경북고와 유신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며 8월 2일까지 목동구장과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또 역전패

K리그 21라운드, 성남에 선취골 넣고도 1-2

광주의 승리도전이 무위에 그쳤다. 광주 FC가 1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남 일화와의 K리그 21라운드 경기에서 1-2로 역전패를 당했다. 성남이 전반시작과 함께 거센 공세로 경기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선취골은 광주가 가져왔다. 전반 15분 프리킥 찬스에서 이승기가 띄운 공이 주장 김은선의 머리로 향하면서 절묘한 헤딩골이 됐다. 광주의 리드는 오래 가지 못했다. 전반 29분 문전으로 돌진하던 성남 에벨론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뒤 키커로 나서 자신의 시즌 8호골을 장식했다. 전반 36분에도 성남이 페널티킥으로 역전

기회를 잡았지만 광주의 신인 윤기해의 선방이 나왔다. 주전 골키퍼 박호진의 부상으로 프로 데뷔전에 나선 윤기해가 에벨론의 골을 막아내며 1-1 승부를 지켰다. 하지만 골맛을 본 에벨론이 후반 31분 도움까지 기록했다. 박세영이 에벨론의 크로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광주의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그대로 2-1 성남의 승리로 끝났다. 이승기는 성남을 상대로 도움을 추가하며 서울 불리나(9도움)에 이어 도움 2위로 올라섰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